



남원제일고 16명, 국제요리&제과경연 전원 수상

남원제일고등학교(교장 한병기) 조리제빵과 학생 16명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2026 KICC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 등 전원이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수상 내역은 △종합 대상(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상) 최재훈, 이승희, 김세민, 권준서, 김예진, 김찬호, 강수민, 정우석 학생 △라이브 코스요리 금메달 최재훈, 이승희, 김세민, 권준서, 김예진, 김찬호, 강수민, 정우석 학생 △라이브 코스요리 은메달 최강, 노영신, 박시현, 진진준, 박서준, 황형진, 조효정, 윤별하 학생이 수상했다.

남원제일고등학교 조리제빵과 대회반 학생들은 지도교사 최정원, 김동현, 이미리, 마예진 선생님의 지도아래 요리 실력을 향상하였고 대회 경쟁력을 키워 나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도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출전

남원소방서는 5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2026년 도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에 남원여성의용소방대 소속 형영임 대원이 남원소방서 대표 강사로 출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경연대회는 도민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의용소방대 강사들의 전반적인 강의 기법을 향상시키고, 향후 개최될 전국대회에 출전할 우수 강사 선발을 위해 마련됐다.

남원소방서를 대표해 단상에 오르는 형영임 대원은 이번 대회에서 '침묵의 살인자 일산화탄소 안전가이드'를 주제로 발표, 무색·무취의 특성으로 쉽게 인지하기 어려워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실생활에서 도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 수칙과 대처 방안을 알기 쉽고 깊이 있게 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 민간대원 모집

남원소방서가 여름철을 맞아 지리산 뱀사골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책임질 '2026년 119시민수상구조대 민간대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기간은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서류접수 후 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대원들은 수난구조요원(8명)과 수변안전요원(12명)으로 나뉘어 활동, 이들은 수난구조 및 응급처치 등 필수 사전 교육을 이수한 후, 피서객이 집중되는 7월 17~8월 17일 한 달간 지리산 뱀사골 계곡 일원에 배치된다.

지원 자격은 소방서 홈페이지를 참고해 남원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자봉센터, '환경 지키고 나눔 실천하고'

국립공원 새만금환경지킴이단과 협력... 지역 주민 참여형 환경정화 활동 본격 확대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는 부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흥귀)와 함께 27일 변산국립공원에서 '부안군 함께 걷고 함께 나누는 실천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하고 현장 중심형 자원봉사 실천 릴레이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도민 참여형 생활 자원봉사 확산을 위한 '10대 자원봉사 테마 릴레이 실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일상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마이크로 자원봉사(Micro Volunteer)'를 기반으로 삼아,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플로깅(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운동)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공원공단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단장 정주영), 부안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송희복), 부안군청년회의소(회장 조항우), 부안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단장 정종귀), (사)유기동물보호센터 허그(이사장 최동환)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동참을 위한 환경보호 실천 선언과 함께 해변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며 공동 실천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각 기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먼저 국립공원공단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은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자연보전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며, 부안군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지역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실천 캠페인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또한 부안군청년회의소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실천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확산하고, 부안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예방 및 예방, 재난 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군민의 안전한 일상 생활을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유기동물보호센터 허그는 생명존중 인식 확산과 반려동물 보호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번 첫 릴레이 활동에 동참해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안군의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밀도 있게 추진되면서 그 의미를 더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임실군, 아이들과 함께하는 친환경 교환 캠페인

임실군은 폐기물 재활용 제고 및 자원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거 교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종이팩, 폐건전지, 아이스팩 등을 수거해 화장지 또는 새 건전지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민들의 생활 속 참여를 통해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임실읍 관내 희망어린이집 원아들이 직접 참여해 폐건전지를 모아 새 화장지로 교환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체험하며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임실읍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자원 교환을 넘어, 군민 모두가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실천적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 캠페인을 통해 자원 절약과 재활용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실=전충영 기자

완주군체육회, 회원단체 보조금 집행 역량 강화 교육

완주군체육회(회장 이종준)는 최근, 운동행정부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13개 읍·면체육회 및 44개 종목단체 사무국장, 총무·회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예산 집행 및 정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강화에 따라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 및 정산 과정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21일 19명, 26일 10명 등 총 29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완주군체육회 박문근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진행했으며, '2026년 시군생활체육대회지원 운영지침'과 '2026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에 맞춘 실무 중심 교육으로 운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집행 원칙 △예산편성 기준 △집행 품의 및 계약 절차 △불복 검수 및 지출결의 △회계장부 처리 방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예산계획서 작성 시 산출내역의 구체적 기재 방법과 200만원 이상 집행 시 실제 감사 및 정산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완주=염재복 기자

부안소방서, 라이온스클럽과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부안소방서(서장 최길용)는 부안·성황 라이온스클럽과 협력해 화재 위험에 노출된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상 설치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소방시설법 개정 전 건축되어 스프링클러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단지의 인명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 장치로, 배터리를 구동되어 노후 주택의 초기 화재 진압 및 대피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히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교육 △화재 시 대피 요령 안내 △불복 화재 예방 자율 점검표 배부 등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대병원, 지역 보건의료인 역량강화 공동교육 성료

전북대학교병원이 지역 보건의료 종사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역 의료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전북대병원은 27일 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 2층 새만금홀에서 '2026년 지역사회 역량강화 공동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도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 1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 주최로 진행됐으며,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원광대학교병원, 예수병원, 군산의료원, 정읍아산병원이 공동 주관했다.

교육은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는 노인 환자와 감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다양한 노인 및 감염성 피부질환의 이해'를 주제로 한 이번 과정에서는 현장 중심의 실무형 강의를 진행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주요 강의 내용은 △노인 음 감염의 진단 및 치료 △임



상에서의 약물 발진 이해와 대응 △흔히 접하는 피부질환의 진단 및 관리 등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의료 현장 대응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공동교육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의료 안전망 구축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심천지사
010-2333-4791
서신지사 272-9417
호지지사 010-8845-9835

중앙지사 010-9088-8874
인후지사 246-8855
송전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8844
군산지사 010-8329-8677
익산지사 859-99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895
순창지사 8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899

임실지사 010-98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정수지사 010-3682-6157
무주지사 010-4172-3800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